56

심낭 삼출액의 외과적 처치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오삼세 · 김기봉 · 안 혁 · 김종환 · 노준량

심낭삼출액은 심한 경우 심낭압전을 일으키거나 만성적인 경과를 거쳐 교약성 심낭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외과적 치료에 의하여 충분한 배액과 더불어 조직생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과 교약성 심낭염으로의 이행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6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10년간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외과적 처치를 받은 총 93명의 심낭삼출액 환자를 대상으로 그 임상기록을 검토하여 심낭삼출의 원인, 외과적 처치의 효용성, 합병증 및 사망률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남녀 구성은 남자가 45명, 여자가 48명이었으며, 연령은 50 ± 30세였다. 술전 모든 환자에서 흉부 X-선 및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심낭삼출을 확인하였고 그 중 25례 (27%)에서 심낭압진의 소견을 보였다. 술전 심낭천자를 시도했던 경우가 26례 (28%)였으며 재발 13례, 불충분한 배액 4례, 부정맥 3례, 출혈로 인한 급성 심낭압진 2례, 진단목적 20례 등의 이유로 외과적 처치를 시행하였다. 마취는 전신마취 59례 (63%), 국소마취 33례 (34%), 국소에서 전신마취로 전환 2례였으며 수술은 검상하 심낭루 조성술 79례 (85%), 개흉술을 통한 심낭-늑막강 개구형성 10례 (11%), 그리고 정중흉골절개를 통한 접근이 4례 (4%) 있었다. 원인 별로는 악성 39례 (42%), 결핵성 29례 (31%), 심장수술후 6례, 요독성 6례, 외상성 5례, 원인불명 5례, 전신성 홍반성 낭창 1례, 갑상선 기능저하증 1례였다. 수술 관련 사망은 모두 3례였으며 술후 합병증은 호흡부전 5례, 출혈 1례, 기흉 1례였고 3례에서 재수술을 시행했다.